

용인시 지능형교통체계, 올해 SW 안전 컨설팅 대상 확정

등록 2022.03.24 10:28:54

전문가들 2개월간 용인시 첨단교통센터시스템 점검 예정



[용인=뉴스시스]용인시청

[용인=뉴스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용인시 지능형교통체계(ITS)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행하는 '2022년도 소프트웨어(SW) 안전 컨설팅'에서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이란 해킹·디도스 공격 등 외부 침입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오작동 등 시스템 위험요인, 잠재적인 결함 요소를 분석해 취약한 부분을 조기에 식별하고, 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말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거나 오작동할 경우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교통·재난관리·치안방법·환경·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확정에 따라 SW품질, 기반 시스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약 2개월간 용인시 첨단교통센터에 상주하며 시스템 전체를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시스템 장애와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줄이고,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컨설팅 대상 선정을 발판으로 삼아 지능형 교통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110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